

직지심체요절 最古 금속활자본

1900년 전후 프랑스인들 인정

1900년 전후 <직지심체요절>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프랑스인들은 이미 '직지'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으로 인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직지는 1972년 유네스코가 개최한 국제 도서전에 출품되면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으로 알려졌다.

직지 연구가인 이세열(주성대 중앙도서관 학술지원팀장) 씨는 최근 발표한 '직지의 성립 및 편성체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프랑스 국립도서관 중앙문헌실에 소장된 직지 원본의 결표지에서 프랑스인이 직지의 간행연도를 1377년이라고 적은 기록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이 글에서 "결표지 상단에 직사각형으로 찍혀 있는 스텐프 안에는 1377년이라는 직지의 간행연도와 함께 1911년 직지가 경매에 붙여졌을 때 목록 번호인 711이 함께 쓰여 있어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임을 확인하고 경매에 붙여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1970년대 이후 누군가가 써 넣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어 향후 필체감정 등의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형진 기자

팔만대장경 이체자 2만3천3백85자

인터넷 국제 표준문자 '가능성'

국제 한자표준회 회의 문자코드위 논의

팔만대장경 이체자가 인터넷상 국제표준문자로 인정받게 됐다. 지금까지 따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만 볼 수 있었던 팔만대장경을 전세계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만날 수 있게 됨으로써 팔만대장경 전산화에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한자표준화회의의 문자코드 특별위원회는 6월 18~22일 홍콩에서 제17차 회의를 열고 팔만대장경 이체자 2만3천3백85자를 포함한 2만9천1백7자를 새로 국제표준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기술표준원은 "참여국가 대부분이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팔만대장경 고유 글자형이 곧 국제공인 서체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자의 글자형은 국제표준으로 인정된 것만 인터넷상에서 판독이 가능하다. 때문에 고서에서 나오는 글자나 글자형이 다른 서체는 글자체가 깨져 인터넷상에서 읽을 수 없게 돼 있다. 팔만대장경의 글자형은 한자 사전에 나오는 글

프로그램 따로 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

자와 뜻이 같더라도 부수나 획수 등 모양이 확연히 달라 이를 인터넷에서 상용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팔만대장경의 고유 글자형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팔만대장경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고려대장경 허인섭 연



△해인사 고려대장경 판본(보물 제972호).

구실장은 "인터넷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니 코드 작업에 박자를 가하고 있다"며 "팔만대장경 이체자가 국제표준으로 등록되면 따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팔만대장경 전산화 작업의 원동력인 박상국(국립중앙도서관)은 "이체자는 3만여 종이 넘는다. <고려대장경이체자전> 편찬에 참여한 이규갑 교수 등이 학문적 검증을 마친 2만3천3백85자를 이번엔 먼저 신청했고, 나머지 이체자가 확인되면 12월에 열릴 18차 국제한자표준화회의에 제안할 방침이다. 기술표준원 연합팀 연구사는 "예전에는 각 나라에서 제안한 이체자 가운데 같은 글자를 확인하는 작업을 일일이 사람이 하다가 보니 국제표준으로 채택되기까지 2년 반 정도가 걸렸다"며 "국제한자표준화회의에서 전산 프로그램으로 이를 확인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는 훨씬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팔만대장경 판각지 강화 아닌 남해"

문화재연구원 박상국 씨 주장

팔만대장경 판각장소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6월 29일 '고려대장경과 강화도' 학술회의에서 박상국(사건) 문화재연구원 연구위원은 강화도에서 판각을 했던 다음 선원사에 보관했다가 조선 태조 때 해인사로 옮겼다"는 기존 통설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박 실장은 "대장경판의 간기와 각수 조사, 그리고 기록 등을 종합해 볼 때 고려대장경은 강화 선원사가 아니라 남해에서 판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각수 조사를 통해 볼 때 같은 경전을 새기면서 동일한 각수가 대장도감이나 분사 대장도감이라는 다른 장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새겼다고는 보기 힘들다"며 "대장도감과 분사 대장도감은 같은 장소이고 남해에서 판각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토론자로 나선 채상식 교수(부산대 사학과)는 "같이 같은 기관에 다른 이름을 붙일 이유가 있겠느냐"며 의문을 제시했다. 권형진 기자

"조계종 기원 9세기 후반"

'도의국사 생애와 사상' 세미나

조계종으로 추앙받고 있으면서도 전하는 자료의 부족 등으로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도의 국사의 생애와 사상을 집중 조명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조계종 교육원은 6월 29일 '조계종, 도의국사의 생애와 사상'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교육원장 직무대행 계승 스님은 "종교로서의 위상을 선양하고 조계종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며 "종교에 대한 추모와 신앙의 새로운 기풍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도의국사의 생애와 사상'을 발표한 성본 스님(종교대 교수)은 "도의국사의 선사상은 무위임운(無爲任運)이라며 "이는 사명분별의 조작성이 없고, 생사의 법을 초월하여 일체에 걸림없이 집착없이 본래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김상영 교수(중앙대)는 "나말여초 선문의 형성과 조계종에서 '9세기경부터 나타나는 '선종' 시대 역시 6조 혜능에게 종조의 위상을 부여하는 점 등으로 봐 고려시대 등장한 '조계종'과 동일하게 인식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도의국사의 사적(史蹟) 연구'를 발표한 정영호 한국고원대 명예교수는 "도의국사가 당에서 귀국한 뒤에 진전사에 초석했던 때가 9세기 초반에 중반"이라며 "평민 정사각형의 기단부 위에 8각의 탑신부를 조성한 것으로 보아 진전사 부도가 도의국사의 묘당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승광사 목조삼존불감 보존수리 '옛모습 찾다'

방사선 투과·X선 분석기 등 사용

조계종 중흥보 보조국사 지불의 원불인 승광사 목조삼존불감(국보 제42호)이 1년여의 보존수리 끝에 제모습을 찾았다. 불상 등의 목조문화재를 전문적으로 보존수리하는 곳이 없는 실정에서 보존수리 과정 하나하나가 일종의 '모범답안'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목조삼존불감 보존수리에는 현대의 과학적 기법이 모두 쓰였다. 윗쪽과 곁쪽, 고정 못의 재질분석

에는 광학현미경과 X선 분석기를 동원했다. 3차원 스캐닝 작업으로 입체 실측도면을 작성했고 방사선 투과 조사로 삼존불감의 복장 여부, 결합방법, 잠금장치 등의 내·외부 구조를 파악했다. 방사선 투과 조사와 일본에 있는 삼존불감과의 비교조사를 통해 중앙에 있는 불감의 본존불에 좌대가 조각되어 있다는 것과 투과 장식이 착탈 가능한 분리형임을 알게 된 것은 커다란 성과다.



△보존수리를 마치고 옛모습을 찾은 승광사 목조삼존불감.

승광사 성보박물관(관장 고정)이 최근 펴낸 수리보고서에는 불감의 규모와 목재의 종류, 가공방법, 제작기법, 결합구조, 윗침기법, 재질 성분, 손상상태 등이 세밀하게 담겨있다. 목조삼존불감의 보수에 제일요법 보존수리 전문가 고준영 씨

가 맡았고 곁쪽 제작은 금속공예 명장 조성준 씨가 맡았다. 목조삼존불감은 보조국사 지불이 품에 지니고 다니면서 예배할 때마다 꺼내서 펴놓고 사용했다는 유물로, 당 나라에서 들어올 때 가져왔다고 전해진다. 권형진 기자

지리신지라 무주구천동 신비의

다슬기

당신의 "간·간·간"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질환... 걱정되지요?

토종 웅덩이와 비밀만천 자연산 참다슬기 살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지역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지리산 무주구천동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 1kg을 다슬기기를 쪄낸 것과 빈 껍데기를 끓여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방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달인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향이리에 넣고 약 97마니를 달인 뒤원기겨 불을 끈다. 그 열로 다슬기가 명숙에 묻어둔 빈 향이리에 볶아 흘러내리게 한다. 다슬기 기름을 만든다. 원기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60~80도 걸린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됨』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자료 신청 : (055) 963-9583 상담문의 : (055) 355-5626

레이키(Reiki 靈氣)를 아십니까?

레이키는 이 우주공간에 가득차 있는 「사랑의 생명에너지」이며 즉 고급 氣입니다. 이것을 끌어다 쓰면 질병도 치료할 수 있고 생활의 여러 방면에 걸쳐서 유익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단 3일 동안의 교육으로 전수해 드립니다.

- 레이키 교육 대상자 (교육기간 3일, 교육비 70만원)
 - ▲ 의사, 한의사, 간호사, 대체의료 종사자,
 - ▲ 성직자, 호스피스 봉사자, 개호복지사, 간병 봉사자
 - ▲ 만성병 환자 혹은 그 가족 특히 불면증 환자
 - ▲ 가정생활에 레이키(氣)를 유익하게 사용하려는 분
- 레이키 요법의 효과

사람은 병이 들면 氣에너지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저하합니다. 레이키 요법은 저하된 氣에너지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여 환자의 자연 치유력이 활성화 되도록 돕고 특히 우울증, 불면증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여러가지 질병에 대하여 유효하게 적용합니다.
- 레이키를 교육받으면
 - ▲ 모든 질환에 대한 요법이 대체로 정해져 있어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습니다.
 - ▲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여기서 원격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 ▲ 부작용이 없고 환자의 사기를 받지 않으며,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 ▲ 생활의 여러 방면에 걸쳐서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현대생활 레이키연구회
(레이키 마스터 박희준)

전화 : 02) 720-5682 / 팩스용전화 02) 720-5720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Reiki.co.kr
서울시 중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저하별 50선 시대문화 5년 승주에서 경향신문사 쪽으로 전이시 5년 피어선빌딩 809호실)

'마음 고요 禪房'

불교 방송 이후
오랜 침묵을 깨고
활동을 시작한 정목스님의
작고 고요한 공간

강남구 신사동 4거리
☎ 02) 548-0218, 0219
E-mail : maumgoyo@hanmail.net

순수한 정면조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운리(佛字)'

오복을 가져오는 세련된미의 응의 품을 꾸세요

2000년 대통령상 수상하신 운장법사의 진품 명품 TV에서 방영된 말미대(불자 용자)

한국 수백여 명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사무실, 가정, 직장, 자선단체,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시름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033) 766-0057 FAX (033) 766-0058
www.korea-art-gallery.org E-mail unjang21@komet21.net
*오밤의 기가 강하게 흐르는 덕화산 운장사 원관선취 열혈기도도량

● 주문 신청방법 우체국 013698-02-045909 조정은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돌탑아미타부처님영험도량 **雲藏寺** 운장선원
韓國佛教藝術文化院